월요광장

책은 사랑스러운 가수처럼 온다

송 광 룡
시인·계간 문학들 발행인

지난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5 국민 독서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연평균 독서율은 성인 65.3%, 학생 94.9%다. 2013년에 비해 성인은 6.1%, 학생은 1.1% 감소한 수치지만, 전체 평균은 74.4%로 OECD 평균 76.5%와 비슷했다.

여러 지표들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광주·전남 지역의 독서량이었다. 서울 13.2권, 인천 13.1권, 대전 11.2권 등에 비해 광주는 8.4권으로 6개 광역시 중 꼴찌였고, 전남도 5.2권으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낮았다.

여기에 1월 27일, '도서관 정보 나루'가 발표한 전국 502개 공공·지역 도서관의 장서 대출 통계에서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다. 각 지역별 대출 순위에서 유독 이 지역만이 다른 지역과는 그 취향이 달랐던 것이다. 예컨대 전국 상위에 든 조정래의 소설 '정글만리', 일본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스웨덴 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등이 지역에서는 한 권도 들지 못했다.

대신 그 자리를 아동용 도서인 '그 겨울의 동화', '언니가 없으면 좋겠어' 등이 차지했다. 책을 빌린 주체가 누구이든 그 책을 읽은 주체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였다는 얘기다.

이러한 지표는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률과도 자연스레 겹친다. 서울 39.2%, 인천 45.4%, 대구 38.7% 등에 비해 광주는 20.8%, 전남은 12.5%로 극히 저조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정말 책을 안 읽는다는 것이 이번에도 입증된 셈이다.

전국적으로 책을 읽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생활과 학업·취업 등이었다. 성인의 책 읽는 시간도 2013년에 비해 조금씩 감소했으니 그만큼 먹고살기가 더 각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한 달에 한 권의 책도 읽을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책을 읽지 못하는 환경을 한꺼번에 바꿀 수도 없으니 이쯤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되물어 보게 된다.

미얀마의 민정 이양을 책임지는 민주의회가 비로소 오늘 열린다. 지난 1월 29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장악하고 있던 의회가 회기를 마치고 마지막을 고했다. 미얀마의 새 국회는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의원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 아웅산 수지와 민주주의민족동맹 한국지부는 2013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지 여사 환영식에서, 독재자가 임의로 바꾼 '미얀마'라는 국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버마'로 표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난 학생들의 지리책 속에서 읽고 있다"로 시작되는 버마 시인 킨 아웅 에이의 시 '어느 침묵하는 영혼의 책'과 마주한 것은 2010년 이맘때쯤이다. 동명의 버마 현대시인 시선집은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모임'에서 활동하던 임동확 시인이 번역했고, 책을 펴내는 일은 내가 몸담은 '문학들'이 맡았다. 한국에서 버마 시인들의 시가 번역되어 시집으로 나온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난 긴 인류사 속에서 읽고 있다"로 이어지는 이 시는 '읽고 있다'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된다.(아주 미시적인) "망고나무와 작은 빗방울로부터 읽고 있다",(어떤 정치적 이유일지도 모르는) "내가 바다에서 표류한 날들로부터 읽고 있다", "내 감각을 마비시켜온 사건들로부터 읽고 있다"는 식이다. 시인은 "내가 불행에 빠져들기 전 2분 속에서 읽고" 있으며, "기만적인 속임수 속에서" "무대 위의 벨벳 커튼과 액션 뒤에서 일어난 것들을 읽고 있다."

물론 이 시에서 읽는다는 것은 독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천 명이 학살된 버마의 '8888민중항쟁' 등의 사건에 연루돼 태국으로 망명한 이 시인의 이력을 애써 들추지 않아도, 이 시에서 읽는다는 것은 곧 바라본다는 것이며,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이며, 지속한다는 것이다. "난 이런 일들을 말하려 애써 왔지만/ 날 제발 용서해 다오./ 어느 침묵하는 영혼처럼 다른 이들이/ 듣거나 알도록 하는 데 무기력할 뿐이니."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읽는다는 것은 쓴다는 것, 말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그때의 읽고 쓰는 행위는 진실을 가장한 거짓을 밝히고, 알게 된 진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책에 실린 찌 아웅의 시 '어느 날 마침내'에는 "마침내/ 증오는 사랑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가장 먼 것이 가장 가깝다", "새로운 극기 속에서/ 사랑은/ 여전히 늙지 않고", "가장 사랑스러운 가수처럼 온다."

이 시구처럼 극과 극이 통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얀마'가 '버마'가 되는 날이 올까. "이 산등성이엔/ 사나운 호랑이들이 우글거린다/ 나의 사랑이여, 내게로 오렴/ 죽순 뜯으러 가자!"(찌 아웅의 '사랑의 시').

호랑이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진실을 찾고 사랑을 실천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의 전부일지도 모르겠다.

올 봄에는 "나의 사랑이여, 내게로 오렴, 죽순 뜯으러 가자."

법조칼럼

부부캠프 소감

이 정 민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얼마 전 필자는 가사재판 당사자들과 함께 1박2일 부부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법원에서 재판만 하면 되지 무슨 캠프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가사소송, 특히 이혼소송은 당사자들이 굉장히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소송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성적이고 발전적인 해결방법이 제시되기보다는 서로 헐뜯고 상처 입히는 주장이 반복되고, 그 중간에서 자녀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가사분쟁의 고통을 끝내고 일상생활로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담·캠프·자녀양육교육 등 여러 가지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캠프 첫날, 아침부터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출발을 위해 법원에 집결한 부부들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오랜 갈등으로 인해 뜨거운 감정들은 소진되고 무감각하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지친 느낌, 이것이 그들의 첫인상이었다. '과연 캠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스쳐갔다.

프로그램은 1박2일동안 휴식과 식사, 취침 시간 등을 제외하고 총 10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어색한 사이를 풀어주는 웜업(warm-up) 시간을 가진 후 사이코드라마(심리극)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중간중간에 부부대화의 기법에 관한 강의라든지 게임같은 비교적 가벼운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이코드라마(심리극)란 주인공의 억압된 감정과 갈등을 역할극을 통해 표현하게 하는 심리치료 기법이다. 주인공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맺어졌고, 어떻게 갈등이 형성되었는지를 역할극을 통해 시각화한다. 주인공은 역할연기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관객들은 주인공이 고통받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이해·공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여러 부부의 역할극을 지켜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부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형성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배우자에게 돌려주고, 배우자에 대한 상처와 원망이 그 관계의 연결점이 되는 자녀에 대한 분노로 표출된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배우지 못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상처입지 않게 대화하는 방법, 힘들어할 때 위로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인식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이 끝없는 악순환과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강행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임해주어 캠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좀 더 부드러워진 표정들, 어색해하면서도 강사의 지시에 따르는 모습들,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서로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법정에서 속 썩였던 사람들,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던 사람들, 찔러도 피 한방울 안날 것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은 돌아보니, 그저 상처 입은 작고 여린 사람들일 뿐이었다.

이런 저런 걱정을 하느라 먼저 손을 내밀고 친절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소심한 내가 부끄럽다.

기 고

더불어 사는 광주! 배려문화에서 시작된다

박 광 원
광주도시공사 사업본부장

우리사회는 산업화를 거쳐 급성장하면서 '스피드 문화'에 젖어 있다. 모든 사고를 생산적 가치에만 두고 자본축적으로 외형적인 몸집을 키우는데 몰두하다 보니, 우리의 삶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소통과 배려문화에는 인색했다.

오늘날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심지어 인간이기를 포기할 만큼 끔찍한 사건들이 적나라하게 비추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사회의 어두운 점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한 선진국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나눔과 배려을 통한 소통의 문화가 더욱 형성 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곤 한다.

특히, 우리 광주는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일선의 선봉에 서왔고,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긴 세월을 수많은 탄압과 고통을 감수해 왔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나눔으로 하나가 되어 지금은 민주·평화·인권의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 자긍심을 가져다 줬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자랑스런 유산과 정신을 가진 우리 광주도 일부 배타적 현상들이 싹트면서 지역의 이미지를 퇴색 시키고 있다. 그 원인을 보면 집단이기주의, 개인주의, 기초질서 위반 등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그 결과, 우리지역이 전국에서 교통사고발생건수와 5대 범죄 발생 비율이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앉고 있다.

배려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기위해 마음을 쓰고 실천하는 행위다. 그래서 배려을 행하는 속에는 봉사와 소통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 들어있어 아주 적은 배려라 할지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설정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배려는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로, 이웃 간 먼저인사하기,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옆 라인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뒷사람 출입문 잡아주기, 공공장소나 다중이 운집된 장소에서 큰소리로 방해를 주지 않는 일, 장애자나 노약자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거나 도와주는 일 등이다.

여기에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이나 여행자들을 상대로 친절하게 안내하는 배려, 지역에 투자하는 경제인들에게 보이는 관심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질서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 등 이 모두가 배려의 가치일 것이다.

올해 광주도시공사는 배려의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먼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7639세대에 대해 유관기관 파트너십 사회공헌 활동전개, 이웃초청 식사하기, 독거노인 말벗 서비스, 나눔 냉장고 및 뒤주 설치 행사 등을 적극 전개해 주민들과 소통할 방침이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설날에는 온 가족들이 한데모여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일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 고향에 갈 수 없거나 혼자 지내야 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외로움을 덜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할 때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일생동안 봉사와 배려를 실천했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신발 한 짝의 일화처럼 올 한해는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社 說

광주 '사후 면세점' 관광객들도 모른다니

'유커'(중국인 여행객) 등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광주 지역의 '사후 면세점' 효과가 미미하다고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들은 매년 면세점포를 늘리고 있지만 홍보 미흡으로 사후 면세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사후 면세'는 출국 전 세금과 관세가 공제된 물건을 구입하는 '사전 면세'와 달리 지정된 매장에서 세금이 포함된 3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한 뒤 공항 환급 창구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후 면세 즉시 환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건당 3만 원~20만 원 미만의 물품(한도 100만 원)은 매장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를 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서울이나 부산 등에 비해 관광 여건이 뒤떨어져 외국인 방문객의 발길이 현저하게 뜸한 광주는 사후 면세점을 매년 늘려왔다. 지난 2010년 9곳이던 점포는 2015년 259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지난해 28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 5025 곳, 부산 1100 곳, 인천 379 곳, 대구 345곳에 비하면 우선 면세점 개수에서도 훨씬 뒤진다. 매장당 월 평균 이용 횟수도 3~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수를 고려하면 상당수는 면세점 지정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입으로만 쇼핑 도시를 외치면서 홍보와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사후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관광 홍보 책자에 면세점 정보를 곁들이고 도심 내에 환급 창구를 설치하는 등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야 할 것이다. 면세점 홍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가 여행사와 협약을 맺어 외국인들을 면세점으로 적극 이끄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전남 신성장 동력 '드론 산업' 적극 육성을

전남도가 최근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적조 예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이 적조 예찰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론을 이미 언론사에서는 스포츠 중계부터 재해 현장 촬영, 탐사보도까지 활발히 쓰고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드론(Drone)이라고 알고 있는 물체는 고공 촬영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이동식 고공 카메라를 말한다. 처음에는 공군기와 같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취미 활동, 산불 진화, 그리고 택배와 같은 수송 목적 등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21세기 창조경제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드론 산업이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 사업' 대상지로 몇몇 타 지자체와 함께 고흥군 고소리가 선정된 이후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타 시·도에서도 잇따라 추진하면서 전남이 한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부산은 지난달 100여 종의 최신 드론이 전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 '2016 드론쇼 코리아'를 개최했다. 대구도 지난달 26일 한화테크윈(주)과 대구시청에서 무인비행장치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스마트 로봇 육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전남도가 정부부처·관련 기업·연구기관 등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이 타 시·도가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남도가 드론 산업의 초기 선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드론 산업은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지역만의 강점을 살릴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 전남을 드론의 메카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이글루

이글루(igloo)는 이누이트(에스키모)족이 눈과 얼음으로 만든 집을 말한다. 대개 추운 곳이라 목재가 부족한 탓에 눈으로 집을 지은 것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글루는 소빙기(짧은 빙하시기, 13~17세기)의 혹한에서 한 민족이 살아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사적 발명이다. 인류사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인류와 날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며, 이글루는 그 관계의 산물이다.

그린란드에는 1000년경부터 시작해 300여 년간을 이누이트와 바이킹이 함께 산 적이 있다. 하지만 14세기를 기점으로 바이킹족은 멸족했고, 이누이트족은 현재도 2만 5000명이 살고 있다.

세계사에서 해적의 대명사인 바이킹이 등장한 것은 기후 변화 때문이었다. 바이킹이 살던 노르웨이는 산악 지형으로 농지가 국토의 3%에 불과하다. 그런데 900년경 기후가 따뜻해지는 온난기가 되면서 식량 생산이 늘자 자연히 인구가 급증했다. 하지만 농지가 적은 탓에 이들은 바깥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급기야 유럽 곳곳에서 약탈을 자행했으며, 상당수가 유럽 대륙과 영국 등에 정착했다. 이중 그린란드에는 식민지를 세워 450년간 지배했다.

그린란드로 이주한 바이킹들은 사냥과 목축 및 식량 재배로 300년간을 잘 살았다. 그러나 기후가 추워지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모두 죽고 말았다. 반면 이누이트는 똑같은 환경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았다. 먼저 얼음과 눈으로 집을 짓고, 내부는 가죽 등으로 단장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었다. 특히 바다표범과 고래를 잡아, 그 기름으로 난방에 성공하면서 기후와 날씨를 극복했다.

최근 이틀 정도의 폭설이 내렸으나 적절한 재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전국이 마비되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제주도는 하늘길이 끊기면서 여행객들이 수일간 고립됐다. 광주와 호남 지역 곳곳도 폭설로 인해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역사적으로 기후와 날씨를 극복한 민족과 문명은 살아남아 꽃을 피웠다. 온난화 현상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현대에는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 여부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